

중학생의 독서방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Methods and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전지연 (Jeeyeon Chun)**

김기영 (Giyeong Kim)***

초 록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숙에 필요한 독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독서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독서방법을 차용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비판적 읽기는 진로 결정성, 확산성에 영향을 주며 감상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는 진로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판적 읽기는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 읽기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읽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독서교육에서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 발달을 위한 학습요소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Regardless of previous educational attempts in youth career education, there are not specific methods for reading to improve career maturity ye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ding method based on cognitive aspect which impacts career maturit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in this proces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roles of reading by applying the various reading methods suggest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from a survey complet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indings showed that critical reading affected the decisiveness as well as the confidence of career maturity. Also, emotional reading and creative reading influenced the preparation of career maturity. Critical reading impacted all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Findings also showed that emotional reading affected self-regulating efficacy. Ultimately, the confidence of self-efficacy partly mediated critical reading and decisiven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guiding reading instructions for practitioners and school curriculums to develop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키워드: 독서방법, 진로성숙, 자기효능감, 진로독서교육

reading method,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reading education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499).

본 연구는 전지연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freshnesses@gmail.com)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kim@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1년 5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6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38(2), 129-152,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2.129>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삶의 환경이 변화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은 이전 세대와 달리 지속적인 진로 변화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진로 교육은 필수적이며 개인의 삶의 질 차원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진로교육법(법률 제 13336호)의 제정(2015.6.22)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진로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유학기제는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하여 다양한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적절한 진로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김현철, 2017)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현황조사(장현진 외, 2016)는 자유학기제가 진로 성숙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의 진로 교육 운영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강태재, 유영주, 2017). 여전히 진로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9).

독서는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체험 등의 진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 도구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는 인지적·정서적 성장을 돕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교육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독서를 적용한 진로 교육과 연구가 시도되었고 다수의 연구는 독서가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박경빈, 권혁민, 2011; 박정애, 2016; 이상애, 조현양, 2007; 하혜란, 송기호, 2015; 한정아, 2011).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어떠한 독서 경험 및 독서방법이 진로성숙과 연관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에 현장에서 진로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성숙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며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반영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을 토대로 진로성숙과 독서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독서의 다양한 변인 중 개인의 인지적 경험을 주목하여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5가지의 독서방법을 기준으로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진로성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위한 긍정적 학습경험으로 독서가 진로성숙을 매개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진로성숙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독서방법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성숙을 돕는 구체적인 독서 활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독서 방법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독서 방법은 무엇이며 자기효능감은 독서법과 진로성숙을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

진로는 선택 뿐 아니라 선호, 선택, 진입, 적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발달적 과정이다. 직업적 선호, 능력, 상황, 자기 개념(self concept)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므로 진로는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다. 삶의 변화에 따라 진로는 성장, 탐색, 확정, 유지, 쇠퇴의 단계로 연속적으로 발달하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직업적 발달 과업에 직면한다(Super, 1953). 진로의 탐색과 계획 등의 영역에서 교육적 개입에 따라 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진로성숙의 개념이 도입되었다(Super & Hall, 1978). 진로성숙은 직업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준비도로 정의할 수 있다(Super, 1957). 특히 진로 발달상 탐색기인 청소년의 경우 진로성숙의 측정은 개인마다 부족한 진로성숙 요인에 대해 이해를 제공하여 기존의 진로 교육을 평가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성숙척도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에서 태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로 선택 과정의 변화,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하위요인으로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준비성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결정성은 진로의 방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진로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그 직업세계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 목적성은 진로 선택

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경제적 보상, 승진 등과 같은 현실적 요소보다는 자기 계발, 사회 봉사, 대인 관계 등의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주체적이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준비성이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계획 정도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로 진로 정보 수집 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진로성숙의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성숙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 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이론적 틀을 가져와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부산물이 아니라 개인, 환경,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구조로 이해한다. 기존의 진로연구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은 개인 내부 요소와 환경적 요인의 결과로 개인과 환경은 모두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 또한 환경,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구조로 이해한다. 환경,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인지에 초점을 두고 진로성숙을 설명한다. 즉, 개인의 특정한 학습 경험에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흥미가 계발된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진로성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의 인지적 요소인 자기효능감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 얼마나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을지 결정

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수동적이라기보다 역동적이며 객관적 능력보다 주관적 인식과 평가가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modeling), 언어적 설득과 같은 정서적 상태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 성공 경험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Bandura, 1997).

특수 과제 수행 영역을 다루는 자기효능감과 달리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일반적 상황을 다룬다. 김아영, 차정은(1996)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분하였다.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의 정도,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 과제난이도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로 정의된다.

청소년 시기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정서적 성장과 연관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인지, 정서, 정보활용능력의 발달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필요한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탐색기로 직업 적응성 향상을 위해 지각된 긍정적 경험으로 경험적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 합리적 진로 준비 활동이 필요하며(이지원 외, 2014) 이러한 활동은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 독서는 학생의 생활 전반 및 진로 문제에 대해 긍정적 경험으로 역할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진로성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2 진로독서와 독서방법

독서는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이자 문화 행위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 세계관과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주요 통로이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독서는 단순히 단어를 해독하는 차원을 넘어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주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독서는 인지 과정 그 자체이며 인지 능력의 발달은 학습의 기본 역량이 된다. 미국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위한 독서에 주목하며 리터러시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National Reading Panel, 2000). 독서를 포함한 리터러시 능력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여 지식으로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지 역량이 갖추어져 있을 때 학습 경험은 확장되며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독서는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이해로 정의하며 읽기, 독해, 리터러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독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의한다.

청소년기에 주목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독서의 교육적 측면은 정서적 기능이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기에 학업만큼 중요한 것은 정체감을 형성하며 성숙에 이르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말, 행동, 삶의 방식을 경험한다(정혜승, 2006). 현실세계 속 타인의 삶과 세계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확인하고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간접 경험의 확장으로 현실적 삶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

이처럼 독서는 개인 내부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에 진로성숙과 연관성이 있다. 진로 교육 현장에서는 진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활용하는 진로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로 독서는 독서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과 삶을 경험하며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주고 관심사를 계발하는데 영향을 준다. 또한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생애사를 담은 도서나 진로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를 통해 진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황매향, 2013). 본 연구에서 진로독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로 정의한다.

진로독서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심리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독서 연구는 주로 독서량, 독서 흥미, 독서 환경 등의 독서 실태에 따른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나 진로독서프로그램 실험연구에 대한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 김택선, 2019; 이은경, 2001; Diemer & Blustein, 2006; 하혜란, 송기호, 2015).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독서프로그램은 진로성숙 요인인 자아정체감, 정보활용능력,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고 현행 진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독서를 활용한다. 그러나 진로독서프로그램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독서의 어떠한 측면이 진로성숙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인지적 관점에서의 진로독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서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일으

키는 요인을 독서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서방법은 독서의 기능에 의한 구분으로 개인의 독서 경험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이러한 독서방법의 구분은 인지적 이해 수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Barrett(1976)의 '축어적(literal) 채인,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과 Bloom(1956)의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기초한다(천경록, 2009). 독서의 이해 과정을 이해의 대상 차원에서 보면 텍스트 중심 이해, 텍스트·독자 중심 이해, 독자 중심 이해로 볼 수 있으며(서혁, 서수현, 2007) 온전한 텍스트 이해를 위해서는 독자 중심 이해, 창의적 이해 수준이 요구된다(이삼형, 1998). 인지적 과정은 후단계가 전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방식이 독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방법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로 분류한다. 독서 방법은 5가지 독서 방법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총체적인 사고가 가능할 때 고차적 사고 능력 발달과 정서적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구체적인 독서 방법의 내용 요소는 학교급의 차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단계별로 구성된다.

2.2.1 사실적 읽기

사실적 읽기란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사실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표층적 읽기를 의미한다. 단순한 단어 이해만으로는 텍스트에 명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기

〈표 1〉 독서 교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독서 방법	학년(군)별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사실적 읽기	- 낭독 - 띄어 읽기 - 주요 내용 확인	- 중심 생각 파악하기 -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	- 목적, 글에 따라 요약하기 - 설명 방법 파악하기 - 논증 방법 파악하기	
추론적 읽기	-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낱말, 내용 짐작하기	- 주제 파악하기	- 배경 지식 맥락 활용 예측하기	
비판적 읽기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 매체의 관점, 표현 의도 평가하기 - 상호 텍스트적 읽기	- 관점이나 표현 평가하기
감상적 읽기		- 경험과 느낌 공유하기			
창의적 읽기					- 해결방안, 대안 찾으려 읽기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어과교육과정.

역하는 등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해의 수준에서 볼 때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위계적이며 사실적 읽기가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보다 유의하게 쉬운 영역으로 볼 수 있다(Basaraba et al., 2013). 그러므로 사실적 읽기는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위해 선행되는 기초적인 읽기로 모든 읽기에서 포함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2 추론적 읽기

추론적 읽기란 텍스트의 이면을 읽어내는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읽기를 의미한다. 추론이란 사전적으로 이미 알려진 정보나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과정이다. 텍스트는 모든 정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행간의 정보에 대한 독자의 논리적인 추측과 사전지식과 함께 통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2.2.3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란 텍스트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가지고 따져보며 읽는 방법을 의미한다(최선경, 2005).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주체적으로 개입한다.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텍스트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독서를 통한 지식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상호 거래를 통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의 사고 과정은 분리적, 위계적이기보다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이므로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실적 읽기와 작가의 의도를 텍스트와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는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한다(김혜정, 2001).

2.2.4 감상적 읽기

감상적 읽기란 글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균호, 2016). 감상이란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독자 측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효과를 포함한다. 감상적 읽기 독자의 적극적 가치 인식과 반응에 집중하며 비판적 읽기를 전제로 한다. 감상적 읽기를 통해 독자는 타인을 공감할 수 있으며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적 이해로 발전할 수 있다(손예희, 2008).

2.2.5 창의적 읽기

창의적 읽기란 독자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목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생산적 읽기를 의미한다(최선경, 2005). 창의적 읽기는 텍스트를 초월하여 이해 수준을 확대하는 단계로 독자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독자 중심 이해'에 해당한다. 유추, 이미지 형성, 상상과 같은 비정형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서적 반응을 통해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이삼형, 1998).

로 받아온 서울, 인천, 경기의 중산층 지역 여자 중학생 4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2〉 참조). 인터뷰의 연구 질문은 1)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가 2) 독서를 좋아하는가 3) 독서가 진로 탐색 시 도움이 되었는가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전사된 원문을 바탕으로 최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메모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논평을 거치며 자료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함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생성하였다(〈표 3〉 참조).

예비연구 결과 청소년의 진로성숙에서 독서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의 영향 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과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보요구가 발생하는데,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적인 탐색을 하며 안정적인 직업 가치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진로 체험이나 진로교사나 담임교사의 역량에 전적으로 진로교육의 질이 맡겨져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인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는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적이며 비판적인 정보적 역할을 한다. 또한 소설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삶에 공감, 동일시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발견하는 등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예비연구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독서의 관계를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연구는 독서 교육을 지속적으

가끔 1~2주 되게 막 나중에 어떡해야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 이런 책도 읽어야겠네..〈충, 균, 쇠〉 같은 거 가끔 꺼내서 읽다가... (S2)

〈표 2〉 피면담자 특징

이름	나이	거주지	독서선호장르	독서지도기간	희망진로	성적	면담시간
S1	16	서울시	판타지 소설	5년 이상	경찰	중상	77:08
S2	16	경기도	소설	5년 이상	교사	상	70:45
S3	16	서울시	없음	3개월 이상	교사	중상	44:54
S4	16	서울시	소설	5년 이상	경찰	중상	52:19

〈표 3〉 예비연구 결과

범주	세부 하위 요소		비고
진로	불확실성	- 안정적 직업 가치 선호 - 제한적 탐색: 존재보다 소유의 개념으로 - 학업 성취 선호	일반적, 문화적 특수성
	자기효능감	긍정적 (학습) 경험 필요	일반적 특성
독서	개인적 발달	개인별 독서 기능, 독서 태도의 발달	일반적 특성
	독서 목적	학업적, 감상적, 정보적 목적	일반적 특성

최근에는 직업 관련된 거 읽었던 거 같아요.
경찰 관련된 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
게 읽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S1)

〈채공녀 강주룡〉에서 나중에 막 자기 뜻대로
막 노동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멋있는 거
예요. 아.,그렇게 해야겠구나.. 되게 막 솔직해
요. 여자가 말하는데 엄청 솔직하고 그런 모습
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사는 세
상〉에서 변호사 아저씨가 되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나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뭔 질문을 받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S2)

예비연구에서는 독서로 획득하는 이해의 범
주와 기능에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서 태도와 독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
달시킨 경우 학습 영역에서 전반적인 이해력
상승 등의 인지 발달을 자신의 강점으로 이해
하고 활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책만 피면 줄리고 흰 건 종이로 검정 건 글씨고.
이해 안 되는데 읽는 거 같아요. 영어 본문 읽는
것처럼 단어 뜻 모르는데 짹 소리내서 읽기만
하네..(중략) 이번에 한참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많이 나왔는데.. 책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애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러니까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해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S3)

또 독서를 많이 해 버릇해서 그런지 이해력이
좋은 편이에요.(중략)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
도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해했을 때의 성취감이
있어요.(중략) 학원 안 다녀요. 아직까진 다니고

싶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S1)

이처럼 독서를 통한 인지 발달 및 긍정적인 삶의 태도 형성은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독서는 청소년이 학교와 학업에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의 가능성을 높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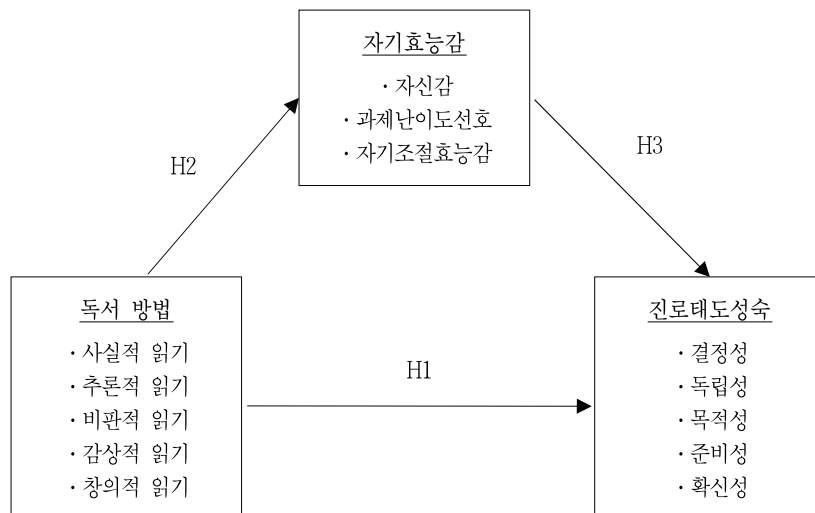
예비연구 내용과 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진로성숙의 통합적 모델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여 독서의 다양한 측면 중 개인의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독서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 요소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

러한 접근은 진로성숙의 과정에서 독서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서방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준을 차용하여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로 구분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통해 향후 교육 현장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자기효능감 향상에 필요한 긍정적 학습 경험으로의 독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독서방법에 따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독서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자기효능감은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3.3 연구 대상 및 조사 도구 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학교 1~3학년 학생 총 146명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통해 집중적인 진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는 진로성숙에서 초기 탐색기로 이 시기의 교육적 개입은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설문 문항은 중학생의 독서 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으로 총 70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항목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4>와 같다. 독서방법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에서 독서방법의 학습 목표로 제시된 내용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자료, 독서 관련 이

론을 토대로 설문을 개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김아영,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진로성숙의 경우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데이터 검토 과정에서 10명의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여 총 1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4 신뢰도 및 데이터 분석방법

조사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독서방법은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비

<표 4> 설문 문항 구성

측정항목과 세부내용	문항수	근거
독서방법 - 사실적 읽기: 글의 줄거리 파악,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 추론적 읽기: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가 - 비판적 읽기: 글의 내용의 타당성, 통일성이 있는지 평가하는가 - 감상적 읽기: 글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 - 창의적 읽기: 글을 통해 나만의 생각을 구성할 수 있는가	25	2015 개정 교육과정 읽기·독서 교과 내용 체계
자기효능감 - 자신감: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의 정도 - 자기조절효능감: 어떤 과제 달성을 위해 자기관찰, 자기 판단 등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 - 과제난이도선호: 목표 선택 및 설정 시 난이도 선호의 수준	12	김아영, 차정은(1996)
진로성숙 - 결정성: 진로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 - 독립성: 진로 선택을 주체적이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 목적성: 진로 선택에서 추구하는 내용 - 준비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계획의 정도 - 확신성: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믿음과 확신성의 정도	20	이기학, 한종철(1997)
기타 응답자 특성: 독서실태, 개인적 특성	13	-

직교 회전방식인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베리맥스 회전을 적용하였다.

독서방법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5, .831, .829, .863, .797으로 요인으로서의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자기효능감에 대한 문항은 김아영, 차정은(1996)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되었으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도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신뢰도는 .849, .800, .877으로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6〉 참조).

진로성숙에 대한 문항은 이기학, 한중철(1997)

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되었으며 특히 중학생은 진로성숙에서 탐색기로 해당 척도가 중학생의 시점에서 진로 관련 경험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의 개념은 일반적 용어인 진로성숙과 동일하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은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신뢰도는 .899, .736, .744, .651, .863으로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표 7〉 참조).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version 25.0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표 5〉 독서방법 측정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비판적읽기	감상적읽기	창의적읽기	추론적읽기	사실적읽기		
비판적읽기 3	.817	.119	-.006	-.019	.041	.799	.829
비판적읽기 1	.803	-.030	.064	.029	.083	.714	
비판적읽기 2	.757	-.039	.086	-.067	.061	.717	
감상적읽기 3	.124	.870	.011	-.006	-.087	.804	.863
감상적읽기 4	-.137	.850	.059	-.031	.096	.767	
감상적읽기 5	-.074	.782	.202	.128	.145	.747	
감상적읽기 2	.145	.743	-.144	-.149	-.056	.648	.797
창의적읽기 5	.136	.065	.871	-.060	-.156	.859	
창의적읽기 4	-.001	.007	.809	-.076	.177	.837	
추론적읽기 1	-.112	.005	.073	-.938	.054	.877	.831
추론적읽기 2	.166	.020	.019	-.795	.019	.842	
사실적읽기4	.102	-.017	.009	-.060	.848	.866	.725
사실적읽기3	.188	.155	-.030	-.124	.583	.686	
고유값 (Eigen-value)	4.133	3.984	2.901	3.635	3.238	-	-

• explained variance = 78.166%

• KMO(Kaiser-Meyer-Olkin) = .866

• Bartlett's test $\chi^2 = 935.600^{***}$ ($p < .001$)

〈표 6〉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2	.849	.135	.164	.766	.877
과제난이도선호4	.828	.088	.186	.728	
과제난이도선호3	.821	.121	.195	.727	
과제난이도선호1	.812	.167	.127	.703	
자신감 2	.118	.841	.273	.796	.849
자신감 3	.160	.830	.154	.738	
자신감 1	.194	.809	.124	.707	
자신감 4	.045	.766	-.113	.601	
자기조절효능감 4	.192	-.073	.819	.713	.800
자기조절효능감 1	.131	.053	.791	.646	
자기조절효능감 3	.114	.203	.736	.595	
자기조절효능감 2	.216	.193	.719	.601	
고유값 (Eigen-value)	2.933	2.792	2.597	-	-

• explained variance = 69.348%
 • KMO(Kaiser-Meyer-Olkin) = .798
 • Bartlett's test $\chi^2 = 814.601^{***}$ ($p < .001$)

〈표 7〉 진로성숙 측정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항목	요인					공통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준비성	목적성		
결정성3	.879	.191	.023	.076	.083	.822	.889
결정성2	.871	.272	-.039	-.081	.012	.840	
결정성1	.865	.021	.003	.194	.015	.786	
결정성4	.739	.151	-.093	.144	.276	.675	
확신성3	.152	.883	.035	.053	.059	.810	.863
확신성2	.227	.850	.029	-.105	.144	.805	
확신성1	.140	.835	.134	.108	.042	.749	
독립성4	.039	.103	.827	.029	.036	.699	
독립성1	.031	-.040	.798	.015	.007	.639	.736
독립성3	-.160	.121	.787	.110	.079	.678	
준비성4	.181	.066	-.028	.820	.068	.714	
준비성2	-.078	-.219	.097	.729	-.010	.595	
준비성1	.191	.258	.097	.718	-.069	.632	.651
목적성2	.138	.036	.022	-.043	.882	.801	
목적성3	.088	.149	.097	.036	.861	.781	
고유값 (Eigen-value)	3.048	2.503	2.000	1.830	1.646	-	-

• explained variance = 73.514%
 • KMO(Kaiser-Meyer-Olkin) = .749
 • Bartlett's test $\chi^2 = 859.969^{***}$ ($p < .001$)

4. 연구 결과

4.1 기술 통계

설문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36명 중 남학생은 63명(46.3%), 여학생이 73명(53.7%)이며 학년별로 1학년 35명(25.7%), 2학년 36명(26.5%), 3학년 65명(47.8%)이다. 독서 실태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독서 목적은 정서적 즐거움(46.3%)과 학업 및 과제(37.5%)이며 선호 주제는 문학(61.0%), 예술(43.4%), 과학기술(28.7%), 철학 및 심리학(27.2%) 순으로 확인되었다. 독서량(1년 기준)은 21~25권(26.5%), 0~5권(22.1%)의 비율이 높았으며 독서시간(1주일 기준)은 1시간 미만(44.1%)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생의 독서 지도 경험은 독후감 쓰기(31.3%), 독서토론 및 발표(15.3%), 도서 선택(15.3%),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14.6%) 순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학생의 독서방법으로 사실적 읽기가 평균 4.040으로 가장 높았고 창의적 읽기가 평균 3.5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신감은 평균 3.419, 자기조절효능감은 평균 3.401로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과제난이도선호는 평균 2.778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은 독립성이 평균 4.091로 가장 높았고 준비성, 확산성, 목적성, 결정성 순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성이 높은 것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상의 독립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준비성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이 대학진학을 위해 경쟁적으로 학업에 몰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각 요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주요 변수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서방법에서 비판적 읽기

<표 8> 각 요인별 기술통계량

(N=136)

측정항목	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서방법	사실적읽기	1	5	4.040	0.735	-0.850	1.401
	추론적읽기	1	5	3.750	0.848	-0.292	-0.250
	비판적읽기	1	5	3.865	0.731	-0.649	1.041
	감상적읽기	1	5	3.984	0.938	-1.075	0.872
	창의적읽기	1	5	3.552	1.028	-0.359	-0.431
자기효능감	자신감	1	5	3.419	1.004	-0.365	-0.458
	자기조절효능감	1.25	5	3.401	0.749	-0.296	0.167
	과제난이도선호	1	5	2.778	0.966	-0.107	-0.367
진로성숙	결정성	1	5	2.952	1.190	0.246	-1.061
	목적성	1	5	3.026	1.058	0.155	-0.607
	확신성	1	5	3.096	1.053	-0.101	-0.568
	준비성	1.33	5	3.505	0.862	-0.362	-0.096
	독립성	2	5	4.091	0.727	-0.437	-0.559

〈표 9〉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측정항목		집단	N	M	SD	t
독서방법	비판적읽기	남	63	4.00	0.65	2.021*
		여	73	3.75	0.78	
자기효능감	자신감	남	63	3.65	0.98	2.504*
		여	73	3.22	0.99	
진로성숙	준비성	남	63	3.26	0.84	-3.192**
		여	73	3.72	0.83	

* $p<.05$, ** $p<.01$

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021$, $p<.05$), 남학생($M=4.00$)이 여학생($M=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 자신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504$, $p<.05$), 남학생($M=3.65$)이 여학생($M=3.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에서 준비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3.192$, $p<.05$), 여학생($M=3.72$)이 남학생($M=3.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변수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에서 중학생의 학년 간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상관분석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독서방법은 하위요인끼리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

적 읽기는 $r=.605\sim.679$ 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독서방법은 자기효능감의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독서방법 전 항목($r=.282\sim.504$)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서방법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진로성숙의 각 하위요인은 서로 다른 독서방법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은 확신성($r=.436$)과 독립성($r=.238$)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준비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조절효능감은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과제난이도선호 또한 확신성, 준비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독서방법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과 연관성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4.3 가설 검증

앞서 살펴본 독서방법의 상관관계에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높은 상관

〈표 10〉 각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독서 방법	사실적	1												
	추론적	.613**	1											
	비판적	.679**	.605**	1										
	감상적	.469**	.411**	.427**	1									
	창의적	.445**	.472**	.484**	.462**	1								
자기 효능감	자신감	.110	.131	.253**	.074	.088	1							
	자기조절 효능감	.407**	.395**	.483**	.282**	.504**	.277**	1						
	과제난이도 선호	.168	.198*	.345**	.269**	.254**	.323**	.409**	1					
진로 성숙	결정성	.154	.076	.287**	.115	.175*	.154	.066	.111	1				
	목적성	.210*	.106	.110	.056	.031	.091	.089	.140	.241**	1			
	확신성	.263**	.201*	.402**	.178*	.206*	.436**	.298**	.276**	.379**	.218*	1		
	준비성	.201*	.091	.146	.376**	.315**	-.096	.297**	.297**	.215*	.024	.082	1	
	독립성	.210*	.133	.062	.083	.099	.238**	.181*	.164	-.033	.116	.143	.127	1

* $p<.05$, ** $p<.01$

관계($r=.605\sim.679$)를 보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 기준에서 독서방법의 구분을 차용하였으나 독서방법에 대한 5단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사실적 읽기는 모든 읽기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추론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독서방법을 별개의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의 과평가(overestimated) 문제를 초래하므로 이 중 가장 상위인지단계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읽기를 대표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4.3.1 독서방법에 따른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독서방법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비판적 읽기는 진로 결정성과($\beta=.271, p<.01$) 확신성($\beta=.394, p<.001$)에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 준비성에 있어서는 감상적 읽기($\beta=.317, p<.01$)와 창의적 읽기($\beta=.214,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감상적 읽기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진로성숙의 목적성, 독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알 수 있다(〈표 11〉 참조).

4.3.2 독서방법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서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독서방법 중 비판적 읽기가 자신감($\beta=.282, p<.01$), 자기조절효능감($\beta=.317, p<.001$), 과제난이도선호($\beta=.256, p<.01$)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beta=.360, p<.001$)가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읽기의 영향력이 더 크다(〈표 12〉 참조).

〈표 11〉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진로성숙 (결정성)	(상수)	1.151	.577		1.955
	비판적읽기	.441	.161	.271	2.743 **
	감상적읽기	-.033	.123	-.026	-.265
	창의적읽기	.064	.116	.055	.552
$F(3,132)=4.049^{**}$, $R^2=.084$, $adjR^2=.063$					
진로성숙 (확신성)	(상수)	.837	.489		1.712
	비판적읽기	.567	.136	.394	4.170 ***
	감상적읽기	.003	.105	.003	.033
	창의적읽기	.015	.099	.014	.149
$F(3,132)=8.486^{****}$, $R^2=.162$, $adjR^2=.143$					
진로성숙 (준비성)	(상수)	2.135	.397		5.375
	비판적읽기	-.110	.111	-.093	-.994
	감상적읽기	.291	.085	.317	3.423 **
	창의적읽기	.179	.080	.214	2.235 *
$F(3,132)=9.178^{***}$, $R^2=.173$, $adjR^2=.154$					

* $p<.05$, ** $p<.01$, *** $p<.001$

〈표 12〉 독서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자신감	(상수)	2.169	.492		4.410
	비판적읽기	.388	.137	.282	2.832 **
	감상적읽기	-.033	.105	-.030	-.310
	창의적읽기	-.033	.099	-.336	-.336
$F(3,132)=3.108^*$, $R^2=.066$, $adjR^2=.045$					
자기조절효능감	(상수)	1.275	.311		4.100
	비판적읽기	.325	.087	.317	3.749 ***
	감상적읽기	-.015	.067	-.019	-.232
	창의적읽기	.262	.063	.360	4.182 ***
$F(3,132)=21.573^{****}$, $R^2=.329$, $adjR^2=.314$					
과제난이도선호	(상수)	.711	.454		1.567
	비판적읽기	.338	.126	.256	2.675 **
	감상적읽기	.131	.097	.127	1.347
	창의적읽기	.067	.092	.072	.735
$F(3,132)=7.193^{***}$, $R^2=.141$, $adjR^2=.121$					

* $p<.05$, ** $p<.01$, *** $p<.001$

4.3.3 독서방법이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
독서방법별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위계

적 회귀분석의 1단계는 독서방법과 자기효능감의 회귀분석과 동일한 과정이며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독서방법과 진로 확신성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모형 1, 모형 2 모두 유의하며 모형 1에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자 R^2 이 .125만큼 증가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비판적 읽기와 자신감이 진로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비판적 읽기가 모형 1에 비하여 모형 2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어($\beta = .394 \rightarrow .270$)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이 진로 확신성과 비판적 읽기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서는 진로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4.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과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독서방법을 확인하고 독서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14>의 가설 검증 결과와 <표 8>의 기술 통계 결과를 고려할 때 독서방법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독서방법 중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는 모두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 결정성과 확신성에 있어서는 비판적 읽기가 진로 준비성에는 감상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가 영향을 미치며 이때 감상적 읽기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방법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효능감에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가 모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창의적 읽기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 마지막으로 독서방법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진로성숙의 전 영역을 매개하기

<표 13>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방법과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회귀 모형	독립변수	B	β	t	R^2 $adjR^2$	R^2 변화량	F(df1,df2)
진로확신성	1	(상수)	.837		1.712	.162 (.143)	.162	F(3,132) =8.486***
		비판적읽기	.567	.394	4.170***			
		감상적읽기	.003	.003	.033			
		창의적읽기	.015	.014	.149			
	2	(상수)	-.058		-.114	.286 (.253)	.125***	F(3,129) =7.506***
		비판적읽기	.389	.270	2.855**			
		감상적읽기	.009	.008	.089			
		창의적읽기	.004	.004	.044			
		자신감	.353	.336	4.165***			
		자기조절효능감	.070	.050	.523			
		과제난이도선호	.055	.051	.591			

** $p < .01$, *** $p < .001$

〈표 14〉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 결과(채택)
1. 독서 방법에 따라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비판적 읽기 → 결정성, 확신성 • 감상적 읽기 → 준비성 • 창의적 읽기 → 준비성
2. 독서 방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비판적 읽기 →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 창의적 읽기 → 자기조절효능감
3. 독서 방법과 진로 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 비판적 읽기 → 확신성,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보다 진로 확신성에 있어서 비판적 읽기가 자신감을 매개하여 진로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진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로 결정과 확신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비판적 읽기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과 주장이 타당한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 비판적 읽기는 단순히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넘어서 자신을 개입시켜 진로에 대한 확신여부를 평가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기효능감은 진로 확신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유도될 수 있다. 비판적 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읽기의 결과로 유용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기억에 저장되고 활용된다. 비판적 읽기는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등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대한 심화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진로성숙을 위한 긍정적인 학습 경험 이 된다.

직업에 대해 알기 원하는 정도인 준비성에는

감상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직업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상상해보는 활동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 경험의 증가는 청소년의 전인격적인 성숙을 돕고 이것이 진로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로 준비성으로 평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평생학습역량이 중요시 되면서 교과과정에서 '한 학년 한 권 책 읽기' 독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학교도서관활성화를 통한 독서 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교육은 독후감 쓰기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실제 독서 경험은 사실적 읽기가 가장 높았고 독서방법에서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서방법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목표를 위한 다양한 독서방법을 개발시키지 못한다면 독서의 고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진로독서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목표에 따른 독서 학습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다양하고 점진적인 독서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을 위한 독서 교육의 학습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여기서 학습 요소는 어떤 인지적인 활동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진로성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독서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 결정성이나 확신성이 낮은 경우 비판적 읽기가 효과적이며 진로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하여 정서적, 실제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감상적이며 창의적인 독서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여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남학생에게는 진로 준비성을 위하여 감상적 읽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 문제를 인지적 관점에서 독서와 연결시킨 것으로 독서 지도 시 독서 자료의 형식과 목록을 한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초월하여 어떠한 읽기 자료를 통해서도 진로 목표에 따른 유연하게 독서 교육 학습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독서교육은 현행 진로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한적인 진로 체험 활동을 보완하여 독서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비판적 읽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비판적 읽기란 독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우선 이 과정에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어야하고 기존 지식과 새로운 정보 사이의 평가를 통해 유용한 정보는 지식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비판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비판적 읽기에서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독서 교육에서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며 다양한 읽기 영역이 종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독서 과목이나 독후감 과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과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과제 속에서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읽기'는 필연적인 행동이며 읽기의 대상은 단행본 뿐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미디어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교육을 포함하여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 비판적, 창의적 읽기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며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청소년의 진로를 포함한 정보요구를 어떻게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진로독서를 위한 독서방법과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진로독서에 관한 기존 연구는 독서 실태나 주제 및 내용 등으로 한계를 두었고 진로 심리학 분야의 경우 진로성숙의 요인과 과정은 밝히는데 기여했으나 독서방법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 비판적 읽기는 진로 결정성,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

기는 진로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비판적 읽기와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발달 단계나 문화적으로 대학입학준비가 경쟁적인 것을 고려할 때 진로 독립성이나 준비성은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으나 결정성, 확신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파악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서방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진로독서교육의 내용 및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 중심적이고 인지 발달을 돕는 독서교육은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며 기존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로독서교육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스스로 잠재력을 깨닫고 계발시킴으로 개인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다양한 읽기 경험이 단계적으로 훈련되고 특히 상위인지와 관련된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를 범교과를 포함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학습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정보 매체인 도서를 대상으로 한 독서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 연구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미디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발달 단계가 다른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연구도 진로독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의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을 도출하여 학습요소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진로성숙에 실효성 있는 진로독서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내에서 누구나 꿈을 찾고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태재, 유영주 (2017).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운영의 실제 현황. *현대교육연구*, 29(0), 27-46.
- 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어과교육과정.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1996년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 독서활동이 고등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1121-1139. <http://doi.org/10.22251/jlcci.2019.19.2.1121>
- 김택선 (2019). 학교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원 사서교육전공.

- 김현철 (2017). 자유학기제와 진로 체험. 제 45차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59-65.
- 김혜정 (2001).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성격. 국어교육, 105(1), 59-88.
- 박경빈, 권혁민 (2011).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주도적 학습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1(1), 1-17. <http://doi.org/10.9722/JGTE.2011.21.1.001>
- 박정애 (2016).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도서관, 83(1), 23-40.
- 서혁, 서수현 (2007). 읽기 능력 검사 개발 연구(1): 읽기 능력 검사의 하위 영역 설정 연구. 국어교육, 123(1), 213-242.
- 손예희 (2008). 서사적 사고를 통한 공감적 시 읽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 126(1), 383-415.
- 이균호 (2016). 읽기 목적에 따른 중학생 독자의 전략 사용양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 태도 측정 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삼형 (1998). 언어 사용 교육과 사고력-텍스트의 이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5(0), 223-251.
- 이상애, 조현양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101-124. <http://doi.org/10.16981/kliiss.38.2.200706.101>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이지원, 송보라, 이주연, 이지향, 이기학 (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진로적응과업에 대한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26(4), 1073-1108.
- 장현진, 윤형한, 김민경, 류지영, 이지은, 유미애 (2016). 진로교육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정혜승 (2006).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16(1), 383-405.
- 천경록 (2009). 읽기교육내용과 지식의 깊이. 독서연구, 21(1), 319-348.
- 최선경 (2005). 국어교육: 비판적 읽기 교육을 위한 질문 구성. 새국어교육, 69(1), 61-87.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 하혜란, 송기호 (2015). 독서기반 진로 탐색 보고서 쓰기가 여고생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46(4), 621-640. <http://doi.org/10.16981/kliiss.46.4.201512.621>
- 한정아 (2011).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05-225.
- 황매향 (2013). 독서를 활용한 진로 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논총, 33(1), 55-7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arrett, T. C. (1976). *Taxonomy of Reading Comprehension*. In R. Smith & T. C. Barret (Eds.), *Teaching Reading in the Middle Grades*. Reading, MA: Addison-Wesley.
- Basaraba, D., Yovanoff, P., Alonzo, J., & Tindal, G. (2013). Examining the structure of reading comprehension: Do literal, inferential, and evaluative comprehension truly exist?. *Reading and Writing*, 26(3), 349-379. <https://doi.org/10.1007/s11145-012-9372-9>
- Bloom, B. S.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Vol. 1: Cognitive Domain. New York, NY: McKay.
- Diemer, M. A. & Blustein, D. L. (2006). Critical consciousness and career development among urban yout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2), 220-232.
<https://doi.org/10.1016/j.jvb.2005.07.00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https://doi.org/10.1006/jvbe.1994.1027>
- National Reading Panel. (2000). *Report of the National Reading Panel: Teaching Children to Read: An Evidence-Based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Research Literature on Rea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Reading Instruction: Reports of the subgroups*. Rockville, MD: NICHD Clearinghouse.
- Super, D. E. & Hall, D. T. (1978). Career development: Exploration and plann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9(1), 333-372. <https://doi.org/10.1146/annurev.ps.29.020178.00200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https://doi.org/10.1037/h0056046>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NY: Harper & Row.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eon, Kyung-Rok (2009). Reading education and the depth of knowledge. *Reading Study*, 21(1), 319-348.
- Choi, Sun-Kyung (2005). Korean language education: Organizing questions for critical reading

- education. *New Language Education*, 69(1), 61-87.
- Ha, Hye-Ran & Song, Ki-Ho (2015). The effect of writing a reading-based career search report on career maturity for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621-640. <http://doi.org/10.16981/kliss.46.4.201512.621>
- Han, Jung-Ah (2011). The effect of career programs using reading therapy 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1), 205-225.
- Hwang, Mae-Hyang (2013).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career education using reading. *Journal of Education*, 33(1), 55-71.
- Jang, Hyun-Jin, Yoon, Hyung-Han, Kim, Min-Kyung, Ryu, Ji-Young, Lee, Ji-Eun, & Yoo, Mi-Ae (2016).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 Ministry of Educ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ung, Hye-Seung (2006).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reading attitude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1), 383-405.
- Kang, Tae-Jae & Yoo, Young-Joo (2017). The actual status of issues and operations related to the free semester system. *Kor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29(0), 27-46.
- Kim, Ah-Young & Cha, Jeong-Eun (1996). Self-efficacy and measurement. *Proceedings of the 1996 Winter Meeting of the Industrial and Organization Psychology*, 51-64.
- Kim, Hye-Jung (2001).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critical rea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105(1), 59-88.
- Kim, Hyun-Chul (2017). Free semester and career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45th the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Career Education*, 59-65.
- Kim, Taek-Sun (2019). School Library Career Reading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Education.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Draft Development Research II Korean Language Curriculum.
- Kim, Yeong-Sik, Kim, Min-Seok, & Lee, Gil-Jae (2019). The effect of reading activities on the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velopmen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 1121-1139. <http://doi.org/10.22251/jlcci.2019.19.2.1121>
- Lee, Eun-Kyung (200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Lee, Ji-Won, Song, Bo-Ra, Lee, Ju-Yeon, Lee, Ji-Hyang, & Lee, Ki-Hak (2014). A study on the concept of career adaptation by life cycle of adults. *Korean Journ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4), 1073-1108.
- Lee, Ki-Hak & Han, Jong-Chul (1997). A tool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8(1), 219-255.
- Lee, Kyun-Ho (2016). A Study on the Strategic Use of Middle School Readers for Reading Purpos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Lee, Sam-Hyung (1998). Language use education and thinking skills - focusing on understanding text.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5(0), 223-251.
- Lee, Sang-Ae & Cho, Hyun-Yang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reading therapy programs on the improvement of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101-124.
<http://doi.org/10.16981/kliss.38.2.200706.101>
- Park, Jung-Ae (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career reading programs on career maturity. *Korea Digital Library*, 83(1), 23-40.
- Park, Kyung-Bin & Kwon, Hyuk-Min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ing tendencies of gift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attitudes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1(1), 1-17.
<http://doi.org/10.9722/JGTE.2011.21.1.001>
- Seo Hyuk & Seo, Soo-Hyun (2007). Readability test development study (1): Study sub-region settings for readability tests. *Korean Language Education*, 123(1), 213-242.
- Son, Ye-Hee (2008). Study on empathetic poetry reading education through epic think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126(1), 383-415.
-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2019 Youth Statistics. Dae-jeon, Republic of Korea: Author.